

보도자료

2024. 8. 6.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

전근표 팀장(061) 350-1301

배 포 : 안전경영지원단 디지털교육연구센터

최근수 주임(061) 350-1325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‘비상경영체제’ 시동

- 간부직 성과급 20% 반납, 사회공헌발전기금 조성 등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 -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이하 ‘KCA’, 원장 이상훈)은 기관의 재정성과 하락과 대·내외 경영여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‘비상경영체제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. KCA는 이번 8월 5일(월), 나주시 본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긴급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.
- 이번 선포식에서 KCA는 비상경영 전담 조직인 ‘비상경영위원회’를 신설하고, 경영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. 세부추진 과제로 자체 예산지출 20% 절감, 간부직 성과급 20% 반납, 비핵심 자산 매각 가속화, 조직인력 슬림화와 함께, 기관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홍보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이번 비상경영체제 선포에 따라 간부직 전원이 내부 성과급 20%를 반납하여 ‘사회공헌발전기금’을 조성하기로 하였다. 이를 통해 광주·전남지역 자립준비 청년 일자리 패키지 사업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ESG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.

- KCA 이상훈 원장은 “지금부터 우리원의 운영을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합니다”라고 밝히며, “우리가 처한 경영위기를 전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극복하여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KCA가 되도록 지혜를 모읍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- 한편, 선포식에 이어 임직원 모두가 반부패·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‘청렴한 KCA’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도 개최하였다.

사진 1



사진 2

